

기조강연 요지



사우수 배일로 한얼연구소
소장 김 철 호
Simon Kim

재외동포 한얼역사관 한국으로 역수입을 꿈꾸다

논어에 이르기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였다. 하늘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하늘에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이다. 하늘은 자연이다. 극미의 세계에 실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연이다. 인간을 지구만큼 확대해 놓으면 바이러스는 인간 크기 정도가 된다. 하늘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류가 생태학적 자각을 통해 자신을 비우고 천지인 자연과 화합함이 하늘에 순종하는 길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무릅쓰고 제 23차 한일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것도 한얼연구소가 자리잡은 로스 앤젤리스 South Baylo 대학에서가 아닌, 서울 종로 피카디리에서다. 지난 2월 고조선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주제로 여러 학자들이 모여 발표하고 토의하던 곳이다. 이러한 역발상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오래 전부터 기다려온 후천 개벽세계는 어쩌면 인류의 재앙으로부터 자각되는 것이다. 예언가들이 말한 세계의 종말은 문명의 전환을 가져온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얼연구소는 지난 20여년의 학술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한얼역사관을 정립하려고 노력해왔다. 한얼은 바로 단군의 별칭이다. 식민 시대사관에 찌들은 한국사학계의 현주소, 일반국민들의 자기비하식 역사상식을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 가혹한 일제 치하에서 그나마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운 곳은 바로 재외동포들이 개척하며 살아갔던 간도, 만주 지역과 하와이, 남가주 지역이었다. 지금 바른 역사 세우기에도 사정이 그러하다.

삼한 중에 재외동포가 역사 바로세우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다. 남한이 하나의 한, 북조선이 하나의 한, 재외동포들이 또 하나의 한. 그렇게 3한이다. ‘고조선 역사 바로 세우기’ (2015), ‘한국인의 시원은 어디서부터인가?’ (2016), ‘고조선 문명이 동아시아 역사 시발점이다’ (2017), ‘한글을 세계인의 소리글자로’ (2018), ‘한겨레의 뿌리 고조선의 세계문명에서의 위상’ (2019). 지난 몇 년 동안 열린 한일학술대회 주제 내용이다.

환단고기는 워서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학회나 학술지에서 언급만 해도 학계에서는 파문이다. 흑피옥 역시 검증되지 않은 위조품 일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함부로 학술적 주제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이 대세다. 사실 고조선의 정통 후예들은 아직도 내몽골 적봉, 조양에 살고 있는 중국 소수민족들이다. 단군세기의 무대이고, 흑피옥이 발굴된 곳이기 때문이다. 수년 전 우하량 흥산문화 지역을 답사했을 때, 적봉 대학의 우건설 교수가 베풀었던 만찬자리가 인상적이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기장죽을 권하며 6천년 전에 조상들이 먹었던 바로 그 음식임을 강조했다.

삼신과 천제문화로 한족, 예족, 맥족을 통합한 고조선이 환단고기 역사서의 주인공이다. 고조선의 후국으로서 북부여가 성립되고, 요동과 요서, 만주 지역에 국가 형태로 자리잡은 제국들, 특히 고구려와 각축한 선비족 연나라도 고조선 역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한족과 맥족 그리고 말갈족 연합국인 고구려 또한 당연히 고조선 후예랄 수 있다. 훗날 거란족의 요나라, 몽골족의 원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청나라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한국만 고조선 역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재로는 영토, 주권, 국민 세 가지 국가 요소를 갖춘 고조선의 후손국은 오로지 한국 뿐이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은 한 때 중원을 차지하고 한족들을 지배했지만 이제 중국인으로 동화되었고, 자신들의 영토조차 중국에 헌납한 셈이 되었다. 중국이 분열되고 다시 주권을 회복할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될까? 과연 만주 고토는 한국에 의해 회복될 것인가? 그곳을 한국의 영토라고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듯 고조선 역사 점유권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조선문명을 기축으로 동아시아 고대사를 다시 써야한다. 환단고기적 역사 상상력과 흑피옥의 고고학적 가치를 살려 대조선을 복원시킬 의무가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2주간 격리 수용을 마다하지 않고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구촌 각지에서 랜선으로 만나는 시청자들과의 교감을 기대한다.